마음의 흐름이 멈춰진 낮아짐

(신8:1~20)

1.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흐름이 멈춰진 낮아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의 흐름이 멈춰진 낮아짐'
'낮아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흐름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갈 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뜻을 기립니다. 이 연못은 주전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왕 산헤립의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안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연못인데,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리는 533m의 S자 형태로 구부러진 터널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혼 샘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기혼 샘의 물이 터널을 따라 성안의 실로암으로 흘러들어오도록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혼 샘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꼭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350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S자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533m로 늘어났다는 것인데, 실로암 쪽과 기혼 쪽에서 터널을 같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이 공사가 딱 중간에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그 옛날에 관측기계도 없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 기혼 샘을 관광하러 가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혼 샘의 해발이 635m 정도 되고 실로암 연못의 해발은 633m입니다. 기혼 샘에서 실로암까지 물이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그

고도 차이가 2m가 채 못 됩니다. 533m의 터널을 뚫으며 2m의 고도 차이를 유지하면서 물의 흐름을 만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실로암 쪽에서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혼 쪽으로 약 270m 파면서 1m 높여야 하고, 기혼 샘에서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270m 파면서 1m 낮춰가야 하는데 둘이 딱 만나게 됩니다. 아! 놀라운 일 아닙니까? 270m 파는 사이에 1~2m 높아지는 것은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물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사8:6절에는 "…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라고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533m의 2m 고도 차이는 경사가 0.6%밖에 안 되는데 그 차이에서도 흐름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낮아짐이 굉장한 이유는 250만 명을 사십년 동안 광야에 가두어 두시면서 낮아짐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을 위해서 250만 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을 사십년 동안 혹독한 광야의 삶으로 가두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의 낮아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그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체질화 시키고 이루려고 하셨는데 이 낮아짐이 무엇일까요? 막연합니다.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고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불투명한 오해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마음은 스냅사진 같은 것이 아니고 동영상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흐름이 있고 마음을 주는 것은 흐름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의 형성은 첫 단계에서 무엇인가를 좋아하게 되면 기혼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마음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그 샘솟는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아해서 샘이 솟아도 고도의 차이가 생기지 않으면 흐름으로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흐름 역시 물의 흐름과 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데,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을 때에만 내 마음은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혼 샘을 '나'라고 치면 실로암은 내가 도달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도달하고 싶어 하는 일이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도달하고 싶은 일이 더 낮은 곳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간에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나보다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흘러갑니다.
가령 동사무소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동사무소 직원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이 사람 마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 지금 그 사람 자신은 대통령이 되는 일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대통령 되는 일을 향해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보내고 있다면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내가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면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향해

서 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업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사업에 마음을 쓰고 고민하고 애를 쓰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마음을 쓰는 일이 안 생기게 되고 마음의 흐름이 중단됩니다. 영어로 'The problem is beyond me.'라는 말은 '그 문제는 나를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면 마음의 흐름이 중단되므로 더 이상 신경 쓰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낮아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삶에서 큰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마음의 흐름이 생긴 것입니다. 기혼 샘과 실로암 연못의 흐름이 완만한 단면도를 보면 거의 같은 평면상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흐름이 생기는데, 내가 삶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어쨌든 그 문제보다 내가 높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에 대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든 애쓰다보면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인데, 아예 내 능력을 벗어나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의 흐름은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동원하게 됩니다. 우상을 동원하면 우리 마음에 그 우상이 힘을 갖고 있다고 믿게 되어서 그 우상을 올라타게 되고 우리의 위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우상 없이 나 혼자 바닥에 있을 때는 나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일들도, 우상을 올라타고 보면 내 위치보다 낮아지게 되어서 이룰 수 있다고 여기고 마음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재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절, 3절, 16절에서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그렇게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사십년 생활을 의도적으로 구상하시고 실행하셨다는 얘깁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십니다. 이 광야 생활의 핵심은 낮아짐에 있는데 왜 낮아져야 합니까?
일주일만 부지런히 걸으면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도 없고, 가나안 동편에 있는 아모리, 모압,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 가두어 버리신 것인데 광야에 가두시고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광야는 나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과 내 살과 같은 가축들을 위해 먹고 마실 수 있는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물 한 모금 얻는 것이 내 능력 위에 있게 되므로 마음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

니다.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문제라야 마음의 흐름이 생기는데 광야에서는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도 내가 마음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마음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빌어먹는 사람들을 '거지'라고 하는데 이북에서는 '꽃제비'라고 한답니다. 이 말이 꽃처럼 아름다워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라 러시아 말에서 나온 단어로 '모든 것이 끝나서 떠돌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컫는 떠돌이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소개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시궁창에서 국수 가락을 주워 먹고, 개똥에서 호박씨를 주워서 씻어 먹습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시궁창 국수 가락조차도 없어요. 개똥 속의 호박씨도 없습니다. 북한의 꽃제비만큼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 마음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가두어 두심으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 조건인 먹고 마시는 일이 거지처럼 길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일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드셨는데 마음의 흐름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십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음의 흐름을 형성할 수 없는 곳에 두시고 사십년 동안을 먹이시면서 옷도 해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일 조차에 대해서도 마음의 흐름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그 일조차도 너보다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 생존을 위해서 국수 가락 하나 주워 먹고 길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 하나 주워 먹는 것조차도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낮은 곳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마음의 흐름이 완전히 멈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두시고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인데 '만나를 먹이신 것이 낮추신다.'고 하는 이유는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염려를 말합니다. 12~14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짓고 배부르게 먹고 살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했고, 내가 마음을 쓰면 먹고 사는 일이 윤택하게 해결 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어느덧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부터 세상일에 신경 쓰려는 경향을 띄게 될 것이나 절대로 그렇게 하면 멸망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결과가 잘 나오고 이익이 많이 창출되었다면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선민은 절대로 그러한 오류와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선민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실 수도 있지만, 선민은 마음이 낮아져

야 하므로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세상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지속되면서 마음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혼 샘과 실로암 연못의 연결과 같이 아주 작은 경사가 있어서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뇌종양에 걸리셨는데 병원에서도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 가두어 두시는 것처럼 암으로 가두어버리셨습니다. 그 동안 자식, 재산, 노후 등에 대해서 신경 쓰던 모든 것들이 내 능력 위에 있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신경 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암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의 흐름이 멈춰진 상태가 되고 낮아지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일에도 신경 쓰려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마음의 흐름이 형성되지 않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천국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사도바울이 고후5: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을 보는 것이고, 고통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지면서도 웃는데 이것이 기적입니다.
북한의 꽃제비가 시궁창에서 국수 가락을 건져 먹는 것조차 아직도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흘러가는 중입니다. 그런 것 정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낮아져서 이 세상에서는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마음의 흐름이 형성될 수 없이 낮아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극한적으로 성취된 곳이 십자가이므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배는 창에 찔렸습니다. 온 몸은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져서 십자가에 달려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해 마음의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지금 당장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지금 망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마음이 못 박힌 상태에서는 마음의 흐름이 형성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나보다 낮은 일이 세상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십자가로 가면 이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마음이 형성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망하려고 해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 대해 마음이 흘러가질 못합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마음도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인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없는 맨 밑바닥에 내려가면 그곳에 십자가가 있고, 거기서 주님이 만드신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의 흐름이 하늘로 치솟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면 내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방금 빠져나온 그 삶의 자리에 당신의 마음을 흘려보내십니다. 2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시잖아요. 마음이 낮아져야 계명도 지켜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가서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흐름을 형성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끌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이 세상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로부터 가장 거룩하고 높은 보좌까지 흐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력을 역행해서 올라온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이후로는 내 마음을 영원한 평강 안에 안아주십니다. 마음이 빠져나온 내 삶의 자리로 당신의 마음을 보내시고, 당신의 뜻을 흘려보내시고, 당신의 계명을 흘려보내주실 때에 바깥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들려지며 지켜지게 되는데 3절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떡이 없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사십년을 살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나를 먹이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떡 문제에 대해 마음을 흘려보낼 필요가 없고, 사십년 광야에서도 옷이 해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물과 음식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입 밖으로 표현되는 생각만 있으면 되고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을 이 세상에서 높은 곳에 위치시켜서 내가 해결하겠다며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내려와야 하는데 내 마음이 차지하고 있어서 내려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낮아짐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면 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곳에 있는 나의 위치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굿을 하든지 점을 보든지 우상에게 절을 하든지, 윗사람에게 뇌물을 먹이든지, 인맥을 활용하든지 어떤 것을 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은 흘러갑니다. 이 마음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높은 곳에 있는 한 복지는 없습니다.
'복 받게 하심이라, 복 주려 하심이라'고 하셨잖아요? 낮아져야 복이 주어집니다. 복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 위에서부터의 흐름이 주어지려면 이 지상에서의 내 마음의 흐름이 멈춰야합니다. 낮아짐은 마음의 흐름이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어느 것을 향해서도 마음의 흐름이 발생되지 않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 천지간에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에 날마다 매달림으로 이 세상일을 향한 내 마음의 흐름이 멈추고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치솟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자리로 흘러내려와 이 세상의 복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